

세계정치판도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변화의 바람은 한국에서 먼저 왔다. 2007년 말 대선에서 한국 유권자들은 10년간 평등주의와 햇볕정책에 매달리며 국가경영에 실패한 정권을 심판하고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내세운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바로 다음 해 미국에서는 변화와 희망을 내세운 민주당이 세계 금융위기와 이라크전쟁에 책임이 있는 공화당 정권을 누르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번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도 '새로운 일본', '이번에는 정권교체'라는 변화의 선거 전략으로 민심을 움직여 50년 이상 집권한 자민당을 압도적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유권자들은 자민당의 국가경영 활약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불자 세상보기

정천구

영산대 교수

일자민당 몰락이 주는 교훈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가 공약한 변화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과도한 중앙집권화 과정을 역전시키고 많은 권력과 자금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둘째, 자민당 지배체제의 특징인 관료와 정치지도자와의 고리를 끊고 정치인은 정책형성에, 관료는 그러한 정책을 이행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도시보다 농촌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과 이익집단보다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하토야마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화의 종언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한국

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지난 1993년 어렵게 이룩했던 첫 비(非)자민당 정권이 정권 내 부쟁과 이달로 11개월 만에 붕괴했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새 정권이 유권자가 불안을 느낄만한 과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치도 이제 변화를 시작한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다케시 사사키 도쿄 대학 전임 교장이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말한 바와 같

이 일본인들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부터 일본의 낡은 자민당 일당체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왔고 20년이 걸려 마침내 그것을 해낸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본 유권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중국에게 넘겨주고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든데 대하여 자민당에게 책임을 돌렸던 것이다. 이번 총선은 20년 만에 최고에 이르는 70%에 달하는 투표율을 보였다.

일본의 정권교체는 유권자들이 복잡한 정치

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만들어낸 이념적 기준이나 변화가 가져올 위험 같은데 영향 받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세계관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플라톤 이래 이성과 감성, 국가와 개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의 이분법으로 사물을 분리하여 인식하던 세계관은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과 탈근대 사회의 도래로 붕괴하고 있다. 20세기 이데올로기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의 정치철학은 이제 세상이 만들어낸 상호존중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는 불교의 세계관으로 점점 더 수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다. 세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 자체임을 알게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유권자들은 이념적 잣대나 환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더 국민을 안심시키고 고통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총선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세계의 정치 지형이 변화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여·야 정당은 이번 일본 총선이 보여준 시대적 추세를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온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9월의 테마·독서

국자는 국 맛을 모른다? 이 말은 <법구비유경> 우암품(愚暗品)의 한 구절이다.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이를 아무리 오래 가까이 하여도 그 법을 알지 못한다. 혀가 음식 맛을 알 수 있듯이 어진 이가 지혜로운 이를 비록 잠깐 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참다운 도의 뜻을 안다고 한다.

가을이 돼 풀어헤친 옷감을 여밀 때면 의례히 내면의 성찰을 말하고 또 그것을 도우는 독서를 운운하는데 근간에는 국민의 독서량이 턱없이 미달인 관계로 도처에서 독서의 달이다 권장도사다 해서 지면을 가득 채운다. 그러나 이럴 때 한번쯤 읽되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양서(良書)이 되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도 함께 진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양서 중의 양서라면 경전일텐데 경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귀찮을 것이다.

경전은 그 읽음에 있어 간경(看經)은 독경만 못하고, 독경은 전경(轉經)만 못하고 했다. 경전을 다만 보는 것, 읽

심연의 마음 찾아가는 독서를 하자

는 것과 굴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읽는다는 것은 뜻을 읽는 것이지만 굴린다는 것은 내외의 행(行)이 완성되는 것이다.

전경의 전통은 요즈음도 승가에서는 잘 계승이 되고 있다. 맑디 맑은 도량 한 켠에서 들려오는 낭랑한 독경소리가 그렇다. 그 독경의 소리는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실현되고 차별없이 일체의 미물에게 원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굴림이 아닐까. 그렇게 읽는 전경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는 육조하는 대승에서 출가하기 전 학자지킴한 시공에서 출연히 듣게 되는 한 구절에서 무상정등정각의 발심과 기연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한 스님의 전경에 의해서이다.

전경에 대한 공덕과 진정한 의미를 헤는 대사는 그의 제자 법달 스님에게 잘 일러주고 계신다. 법달 스님은 평소 <법화경>을 많이 읽었는데 300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자꾸 읽다보면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다보면 행간을 읽고 내외의 행이 완성되리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정성들여 3000번이나 읽었지만 대승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던 법달 스님이 헤는 대사가 고백하자 대사는 일언에 참된 독서를 가르쳤다. 바로 "심미화전(心迷法轉)이요 심오

전법화(心悟轉法華)니 송경구불명(誦經久不明)하면 여의작가(與義作贊家)하리라"는 것이다. 즉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너를 굴릴 것이요, 마음이 밝아지면 네가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니, 경을 독송하여도 오랫동안 그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간직된 뜻과 는 원수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다.

경을 읽어 마음까지 밝혀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경에 담겨져 있는 뜻을 등지게 되는 것이니 경을 읽는 자는 모름지기 그 뜻을 깨달아야 경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전 삶이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삶이 된다는 대승의 취지이다. 이번 기회에라도 더 늦기 전에 심연의 마음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독서를 해보자. 국맛을 모르는 국자가 아니고 진정 음식 맛을 아는 혀처럼 음식을 맛 볼 줄 아는 그런 독경, 뜻이 통하여 참으로 통쾌하고 삶이 평온해지는 그런 독서를 하자.



명석 스님
동국대 외래강사

화제의 시간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등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육입이 보인다
공손 지음/4x6배판/양장본/7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자/신국판/양장본/50,000원

이계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신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승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교·범종

자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와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대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